고승 진영·괘불·판화…사찰 박물관 전시 '눈길'

전국 성보박물관 부처님오신날 맞아 특별전 잇달아

박재완·신성민 기자

영축총림 통도사의 역대 고승 진영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전시가 열린다.

통도사 성보박물관(관장 송천)은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5월 20일부터 7월 2일까지 제1, 2 기획전시실에서 '통도사 고승 진영 특별전-진면목'을 개최한다.

이번 특별전에는 통도사 영각과 박물관에 소장돼 있는 진영 80여 점과 관련 유물 30여 점이 전시된다. 특히, 통도사 고승 진영이 일반에 공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눈길을 끈다.

자장 율사가 통도사를 개창한 이래 1300여 년 동안 수많은 고승들이 통도사에 주석하며 법을 펼쳤다. 오래된 사찰의 역사만큼이나 통도사는 국내 사찰 가운데 가장 많은 100여 점의 고승진영이 전래되고 있다. 그간 고승들의 진영들은 일반에 공개되지 않았다.

옛 화원은 영정을 그릴 때 "터럭 한 올이라도 다르면 그 사람이 아니다(一毫不似 便是他人)"라는 기본 정신을 가지고 있었다. 이는 형상을 그리되 정신을 표현하려는 노력으로, 진영에 그려진 고승들의 모습에는 서릿발 같은 선풍(禪風)으로 영축산을 호령했던 정신이 담겨 있다.

통도사 성보박물관은 역대 고승들의 진영을 시대 순으로 전시하며 고승들의 찬, 행장 및 자료, 유물 등을 함께 정리·전시한다.

통도사 주지 현덕 스님은 "이번 전시는 통도사 고승들의 진면목을 찾는 중요한 전시다. 진면목은 그 어떤 것으로도 표현할 수 없으며, 베끼고자 하여도 베낄 수 없고 그리고자 하여도 그릴 수가 없다"면서 "통도사가 더욱 빛나는 역사를 만들어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은 것 같아 기쁘다"고 말했다.

통도사 성보박물관장 송천 스님은 "조선후기 진영 제작기법과 양식 등의 연구와 함께 진영에서 드러내고자 했던 진리의 정수를 탐구할 수 있는 전시가 될 것"이라며 "길 없는 길 속에 행적을 살펴보고 마음속의 정성을 다하여 감히 조사들의 현묘한 깨달음의 이치를 조금이나마 궁구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법보종찰 해인사(주지 혜일)의 '영산회괘불도'가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일반에 공개된다.

해인사성보박물관(관장 관암)은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최근 보존처리를 완료한 경남 유형문화재 '합천 해인사 영산회괘불도'를 친견전시를 6월 11일까지 진행한다"고 5월 15일 밝혔다.

'합천 해인사 영산회괘불도'는 해인사에 주석하며 많은 불화를 제작한 화승인 서암당 전기(瑞庵堂 典琪) 스님을 필두로 우송당 상수(友松堂 爽洙)·두명(斗明)·정건(正建)·문성(文性) 스님 등이 1892년 조성한 것이다.

화면 중앙에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자리하고 계시며, 문수·보현보살과 가섭·아난존자, 사천왕이 좌우 2위씩 배치되어 있는 다소 단순한 구도이나, 섬세한 표현으로 세련미를 갖춘 것이 특징이다. 또한 양 보살의 어깨선을 굵게 표현하여 부처님의 앞에 서있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는 입체감을 잘 표현한 불화다.

'합천 해인사 영산회괘불도'는 해인사 대적광전에 안치돼 있었으며 야외법회 때 대적광전 당간에 걸었다. 최근 보존처리를 마치고 성보문화재의 안전한 보존과 관리를 위해 해인사성보박물관으로 이운됐다.

해인사성보박물관장 관암 스님은 "가정의 달인 5월과 부처님오신날을 맞이해 해인사와 해인사성보박물관을 찾아 우리 문화재를 살펴보며 역사와 전통을 느끼고, 현재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원주 명주사 고판화박물관(관장 한선학)은 불기 2567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5월 17일부터 8월 31일까지 '불교도상의 향연- 동아시아 밀교만다라 특별전'을 개최한다.

'밀교'를 주제로 한 이번 특별전에서는 밀교의 불보살과 명왕, 천신 등 판화로 만들어진 200여 종의 도상이 소개된다.

이번 전시에 처음으로 출품되는 주요 작품으로는, 〈삼국유사〉에도 등장하는 밀교 문두루 법을 그림으로 볼 수 있는 중국 당 시대 그림을 일본에서 판화로 복가한 승적비사문천왕 판화다. 당나라에서 공부하고 돌아온 신라의 명랑법사가 문무왕의 지시로 사회와 국가를 지키는 기도법인 문두루법을 실시하여 당나라 병사들을 물리쳤다는 기록이 글로는 남아 있었으나, 그림으로 표현된 자료는 없었다. 이번에 전시되는 원적비사문천왕 판화를 통해 밀교의 진호국가 의례가 당나라 때부터 성행했음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중국 송과 원대의 작품으로 추정되는 비단에 목판으로 찍은 문수보살상은 범어가 들어있는 다섯 명왕이 오방으로 문수보살을 호위하고 있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 특히 문수보살이 타고 있는 사자의 판각 솜씨가 돋보이는 빼어난 작품성으로 인해 동 아시아 고판화의 뛰어난 작품으로 새롭게 자리매김할 만한 작품이다.

일본의 국보인 공작명왕상은 일본의 자랑인 목판 인쇄술을 자랑하기 위해 제작된 작품으로 1904년 미국의 세인트루이스에서 열린 만국박람회에 출품되어 금패를 받은 작품이다. 대형 공작명왕상 불화판화는 판각술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불화는 그리는 작가들을 위한 불화 초의 역할도 할 수 있는 작품이다.

한국의 작품으로는 고려시대 판각된 금강계, 태장계다라니와 유가심인도가 돋보이며, 500여 년 전 제작된 것으로 밀교의식을 종합해서 보여주는 안심사 제진언집(강원도 유형문화제)과 만연사판 중간진언집이 소개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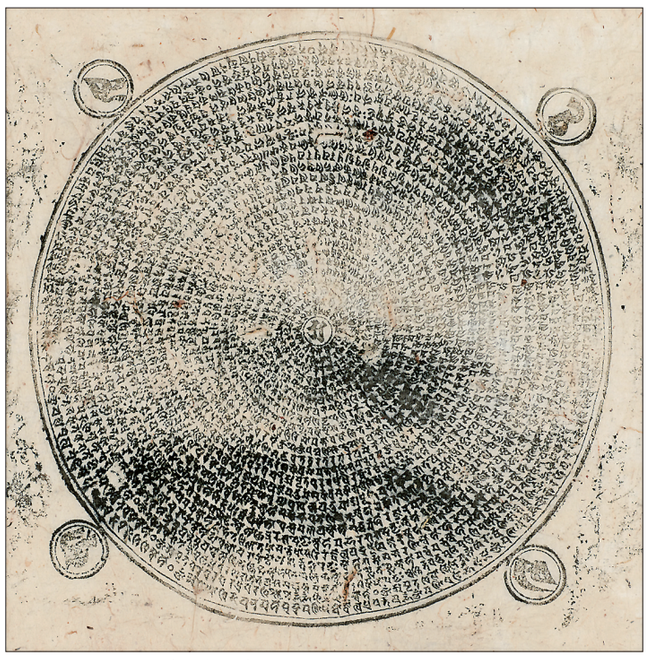
한선학 관장은 "이번에 기획한 특별전은, 고판화박물관 개관 20주년 기념 2번째 대규모 전시회로, 특히 그동안 수집된 고판화박물관 유물 6000여 점 중에서 불교회화사와 판화사에서 주목받는 '밀교'와 관련된 목판과 전적, 불화 판화 등 200여 점을 선별했으며, 관련학자들과 전문가들뿐 아니라 일반 관람객들에게도, 동아시아인들이 꿈꿔왔던 현생에서 성불하는 즉신성불의 길인 밀교의 세계를 고판화를 통해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어 동양 문화를 심층적으로 연구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통도사 성보박물관
7월 2일까지 '고승 진영 특별전'
80여 고승 진영 일반에 첫 공개

해인사 성보박물관
6월 11일까지 '영산회괘불도' 전시
최근 보존처리 완료… 친견 기회

명주사 고판화박물관
8월 31일까지 밀교만다라 특별전
고려代 금강계 등 200여 종 선봬


합천 해인사 영산회괘불도.


한국-태장계다라니(고려시대).


자장율사.


환성지안.


청허휴정.



불기2567(2023)년 부처님오신날 마음의 평화 부처님 세상

부처님 법으로 다시 태어나는
환희 가피 있으시길 바랍니다

대한불교조계종
개화산 약사사

주지 범해 스님

사부대중 일동

서울시 강서구 금낭화로 17길 261 약사사
(02)2662-2551, 7551